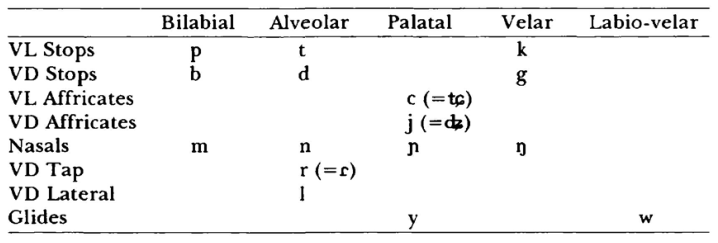
[Lango] 1. 자음과 모음

0. 개관

Lango는 우간다의 Lango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화자 수는 약 180만 명이다. 나일어족의 서나일어파에 속한다. (동나일어파에 속하는 남수단의 Lango와는 별개의 언어이다.) 많은 화자들이 우간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

1. 분절음운론

1.1 자음 체계



음절말에서 파열음은 보통 unreleased이라서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해 듣기 힘들다. 유성음 앞의 모음은 무성음 앞의 모음보다 조금 더 길게 발음된다. (장모음만큼 길게 발음되진 않는다.)

파열음, 파찰음, 비음, /l/은 장음화될 수 있다.

1.2 자음의 분포

Lango어의 음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C) (G) V (C) C = 반모음을 제외한 자음, G = 반모음, V = 모음

차용어를 제외하면, 폐음절은 형태소 말에만 나타난다.

CG 연쇄는 어근 초에만 나타난다. /w/는 장자음이나 반모음이 아닌 모든 자음 뒤에 올 수 있다. /y/는 그 가운데 양순음과 치경음 뒤에만 올 수 있다. (단, /ny/는 나타나지 않음)

차용어를 제외하면, CC 연쇄는 형태소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접사가 붙음으로써 형태소 경계에서 자음군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두번째 자음은 경구개음, 연구개음, 또는 /w/여야 한다. 두 번째 자음으로 양순음이나 치경음이 올 경우, 자음군 간소화를 거쳐 두번째 자음은 사라지고 첫번째 자음이 장음화된다.

단일 자음이 나타나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나누자. # = 단어 경계, + = 형태소 경계

A: # \_ V : 단어 초

B: V + [ \_ V  
 {n,v,a} : 접두사와 명사/동사/형용사 어간의 경계 (Lango의 모든 접사는 모음으로 끝난다)

C: V \_ V : B를 제외한 모음간 환경

D: V \_ # : 단어 말

A와 B 환경에서 자음의 분포는 똑같다. A와 B 환경에는 장자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나타날 수 있다. 느리게 말할 때는 자음 없는 A 환경에 [ʔ]를 삽입하기도 하며, 자음 없는 B 환경에 [ʔ] 또는 [ɦ]를 삽입하기도 한다.

C 환경에서 단자음인 무성 파열음/파찰음은 다음과 같이 마찰음 또는 탄음으로 약화된다.

/p/ > [ɸ] (일부 화자)  
 /t/ > [ɾ̥]  
/tɕ/ > [ɕ] (일부 화자는 특정 단어에서 [ɕ] 대신 [s] 사용)  
/k/ > [x]

파열음, 파찰음, 비음, /l/은 장음화될 수 있다. 장자음은 단어 내에서는 C 환경에서만 나타나고, 단어간 연음(external sandhi)에 의해 D 환경에서도 나타난다. 장자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1) 자음군 단순화. C + {양순음, 치경음} > Cː

/ɔ̀t + mɛ́rɛ̂/ > [ʔɔ̀tːɛ́rɛ̂]  
house-3SA  
‘his house’

자음군 단순화는 보통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서 일어난다. 빨리 말할 때는 단어 간에도 일어난다.

(2) 동사 어간. 동사 어근의 마지막 자음은 transitive infinitive와 진행상 어간에서 장음화된다.

/din/ ‘thresh’ [dìnːò] ‘to thresh it’ [ʔádìnːò] ‘I am threshing it’ cf. [ʔàdínò] ‘I threshed it’

또, benefactive와 ventive 어간에서도 장음화된다.

/kel/ ‘bring’ [ʔòkèlːə́] ‘he brought it for me’  
/riŋ/ ‘run’ [ʔòrìŋːô] ‘he ran to me’

(3) 단어간 연음.

(3a) Attributive particle /à/ 앞에서: associative 구문의 핵어의 마지막 자음이 장음화된다. 추가로, 파열음과 파찰음은 무성음화된다.

/búk # à # dákô/ > [búkːá ˈdákô]  
book Part woman  
‘the woman’s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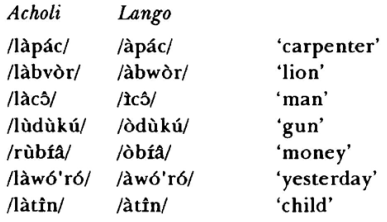
(3b) 3인칭 단수 진행상 동사 앞에서

/món # à+tèd+ò/ [mónːàtèdːò]  
women 3S-cook-PROG  
‘the women are cooking it’

단, 대명사 주어 등 주제화된(topicalize) 단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ɛ́n # à+tèd+ò/ [ɛ́n àtèdːò]  
he 3S-cook-PROG  
‘he is cooking it’

(3c) Zero consonant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Lango에는 역사적으로 어두 자음이 있었지만 탈락한 단어가 많다. 모든 행위자 명사(agent noun)는 여기에 속한다. 친족 언어인 Acholi의 동원어에는 어두 자음이 보존되어 있다.



[mánːòdùxú]  
this gun  
‘this is a gun’

Zero consonant로 시작하는 단어의 장음화 촉발 여부는 화자마다 다르다. 위 예문을 장음화 없이 [mán òdùxú]로 발음하는 화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일수록 장음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àpác/ ‘carpenter’과 같은 행위자 명사는 일관되게 장음화를 일으킨다. Zero consonant는 Lango의 다른 음운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소수의 예외적 어휘를 제외하면 장자음은 위에서 설명한 형태음운론적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어휘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없다. 예외적인 단어들도 장자음 대신 단자음이 있는 형태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tánnà ~ tánâ ‘bed’ < Swahili *ki-tanda*

/ŋ/은 C 환경에서 양쪽 인접한 모음을 비음화시키고 탈락한다. 원래 비음과 인접한 모음은 살짝 비음화되지만 /ŋ/이 탈락하며 남기는 비음화는 보다 확연하다.

/gɛŋ/ ‘prevent’ [ʔàgɛ̃́ɔ̃̀] ‘I prevented it’

D 환경에서 반모음 [w] [y]는 나타나지 않는다.

1.3 자음접변

단어 내/단어 간 CC 연쇄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C2가 경구개음/연구개음인 경우), C1이 파열음/파찰음이면 C1은 C2에 voicing이 동화된다.

/yàt+gí/ > [yàdgí]  
tree-3PA  
‘their tree’

보통 빠르기로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환경에서 단어 간 동화가 허용된다.

(1) 명사 + 수식어 (2) 동사 + 목적어 (3) 전치사 + 목적어

느리게 말할 때는 단어 간 동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말할 때는 다른 환경에서도 단어 간 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어근은 어말 자음이 0/y/c로 교체된다.

òpà-ò ‘he carved it’ pàːy-ò ‘to carve it’ àpác ‘carver’

òwɛ̀-ɔ̀ ‘he swept it’ wɛ̀ːy-ò ‘to sweep it’ àwéc ‘sweeper’

/y/가 나타나는 환경: 장자음이 요구되는 동사 어간

/c/가 나타나는 환경: 가정법 동사를 제외한 단어 말

/cc/가 나타나는 환경: alienable possession을 나타내는 접사 앞

wì-ə́ wìcc-ə́  
‘my (own) head’ ‘my (animal) head’

cf. bàm-á bàmm-á  
‘my (own) pelvis’ ‘my (animal) pelvis’

0이 나타나는 환경: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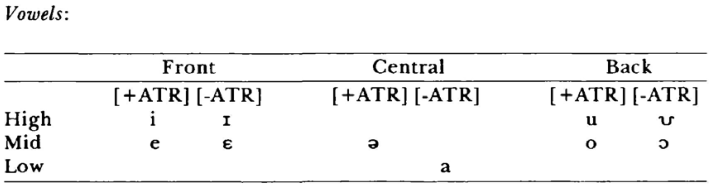
[y]가 음절말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을 고려하면, 0/y/c 교체 어근은 기저에서 /y/로 끝난다고 가정해도 될 것 같다.

전치사는 associative 접미사 형태의 대명사 목적어를 취한다. 이때 모음접속(hiatus)이 일어날 경우 사이에 /r/이 삽입된다.

pɪ̀+á > pɪ̀rá ‘according to me’  
mɛ́+á > mɛ́râ ‘for me’  
tɛ̂+á > tɛ́râ ‘under me’

2. 모음

2.1 모음 체계



Lango의 모음은 [+ATR]과 [-ATR]이 쌍을 이루고 있다. [+ATR] 모음은 대응하는 [-ATR] 모음에 비해 혀의 높이가 높고, 혀뿌리가 앞으로 당겨져 있다. [-ATR] 모음은 creaky voice로 발음되기도 한다.

2.2 장모음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모음은 길게 발음된다.

1) 명사, 형용사, 동사 어말의 강세 모음

2) 어말의 /r/ 앞

3) /r/과 /y/는 장음화되지 못하는데, 이들이 장음화되어야 할 때는 대신 그 앞의 모음이 장음화된다.

4) contour tone을 받은 강세 모음

5) zero consonant 앞

2.3 모음조화

Lango에는 비대칭적인 모음조화가 있다. [+ATR] 모음은 특정 환경에서 [-ATR] 모음을 동화시킨다. [+ATR]과 [-ATR] 모음이 어근과 접사의 기저형에서 모두 나타나며, 순행동화와 역행동화가 모두 일어난다.

ɲîm + á > ɲímə̂ (순행)  
forehead-1SA  
‘my forehead;

lɛ̂b + í > lébî (역행)  
tongue-1SA  
‘my tongue’

I. 접두사는 모음조화를 일으키거나 당하지 않는다.

II. 일반적으로 모음조화가 미치는 범위는 1음절 내이다.

bɔ̀ŋɔ́ + ní > bɔ̀ŋòní  
dress-2SA  
‘your dress’

단, 2음절 접사는 2음절 모두 모음조화의 영향을 받는다.

cèg + ɛ́rɛ̂ > cègérê  
close-MID  
‘to be closed’

III. 자음/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로 인한 역행동화는, 모음이 고모음이 아닌 한 차단된다.

bɔ̀ŋɔ́ + ní > bɔ̀ŋòní bɔ̀ŋɔ́ + nò > bɔ̀ŋɔ̀nô  
dress-2SA dress-that  
‘your dress’ ‘that dress’

IV. 자음/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에 대한 순행동화는 차단된다.

wèlò + ná > wèlòná  
visitor-1SA  
‘my visitor’

단, 어간모음(stem vowel)이 없거나 탈락했으며, 어간말 자음과 접미사의 첫 자음이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경우, 모음조화는 차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사 접미사는 이 경우에도 모음조화가 차단된다.)

wèl + ná > wèllə́  
visitor-1SA  
‘my visitor’

V. 어간모음 /ò/는 어근 모음(root vowel)에 모음조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wálò ‘to boil’ dákô ‘woman’

2.4 단어 내 모음접변

접미사 모음 두 개가 인접할 경우 첫번째가 탈락한다. 그러나 성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통해 탈락하는 모음은 어간모음과 benefactive 접미사 /-ɪ̀/ 뿐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 올 수 있는 접미사는 이들뿐이기 때문이다.

ò-wɪ̀l-ɪ̀-á > òwìllá  
3S-bring-BEN-1SO  
‘he brought it for me’

2.7 단어 간 모음접변

특정 조건에서 어말 모음과 다음 단어의 어두 모음이 접변을 일으킬 수 있다. 첫 단어의 어말 모음이 탈락하고, 다음 단어의 어두 모음이 그 [ATR] 자질의 값을 받아 음운론적으로 첫 단어의 일부가 된다. 단어 내 모음접변과 마찬가지로, 탈락한 모음의 성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òtèdò àbòkè > òtèdə̀ bòkè  
3S-cook-PERF beans  
‘he cooked beans’

탈락은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이상 일어나지는 않는다. 탈락이 일어날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V1도 V2도 강세모음이 아니다.

II. V1은 어간모음 또는 benefactive 접미사 /-ɪ̀/이다. 이는 단어 내에서 삭제될 수 있는 모음과 같다.

III. V1이 /a/이면, V2도 /a/가 아닌 한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 attributive particle /à/는 예외이다. /à/는 V2가 무엇이든 탈락한다. 이때, V2는 /à/의 [ATR] 값을 받아 [-ATR]로 변하지 않는다.

/à/의 또다른 예외적 특징은, /à/가 V2일 경우 V1 대신 /à/가 탈락한다는 점이다. 단, 예외의 예외로서 /à/ 뒤에 또다른 /a/가 올 경우는 제외한다.

IV. V1이 주제어의 일부이면, V2도 주제어의 일부가 아닌 한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V. Zero consonant가 끼어드는 경우 탈락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단어의 어두 모음이 앞 단어의 음운론적 일부가 되는 현상은 모음 탈락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dɔ́g òlwɪ̀t > dɔ́gɔ̀ lwɪ̀t  
mouth eagle  
‘eagle’s mouth’

píg àbòlò > pígə́ bólò  
juice plaintain  
‘plaintain juice’

이때 모음은 앞 단어와 모음조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동하면 원래의 어말 자음은 D 환경이 아닌 C 환경에 놓이게 된다.